보건행정학회지: 제 19 권 제 3호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Vol. 19, No.3, September 2009 ; 166-182
DOI:10.4332/KJHPA.2009.19.3.166

▧ 원 저 ▧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천의영*, 남영희†**, 권현주**

수원여자대학 간호보건학부 전임강사*
수원여자대학 간호보건학부 겸임교수**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 Administration

Cheon, Eui-Young*, Nam, Young-Hee† *, Kweon, Hyun-Joo**

*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Suwon Women's College**

*Adjunct 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health, Suwon Women's College***

Objectives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career education exper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 administration.

Methods : The subjects were 395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 administration from 2 universities and 2 colleges located in Incheon city, Gyeonggi province, and Chungcheo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 to 20, 2008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s : For the difference by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score of

* 접수: 2009년 5월 19일, 수정 : 2009년 7월 21일, 심사완료 : 2009년 9월 29일
† 교신저자:남영희, 수원시 권선구 수원여대길 62, 수원여자대학 간호보건학부 Tel : 031-290-8138, 010-5204-3132, FAX : 031-290-8142, E-mail : salubia@swc.ac.kr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F=3.415), high school style(F=2.661), subject economic status(F=3.627), subject satisfaction of school life(F=7.964), subject health status(F=6.507). For the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 Career attitude matur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from friends, social support from family, social support from professor, career education experience. In a regression analysi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β=.378), social support from friends(β=.198), age(β=.124), grade(β=-.161)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career attitude maturity(32%).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activates the social network from friends an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se findings.

Key words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 보건 행정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진로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직업을 가지기 전이나, 가진 후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이다. 특히 대학시절은 그동안의 어느 시절보다도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이며,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진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장래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과 선택은 학생 스스로 직업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 결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여건으로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은 입학 후 진로 선택과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이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직업 가치관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행정 분야의 진로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남영희 등, 2008)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보건행정학과는 1963년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에 개설된 보건행정학과를 위시하여 70~80년대에 2년제 대학에서 80년대 말부터는 4년제 대학에서 보건행정학과가 신설되면서 대학에서 보건관련학과의 수량적인 증가가 가속화 되었다(감효정, 1999). 2009년 6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4년제 대학교의 보건행정학과는 9개교이고, 2년제 대학의 보건행정과는 21개교로(교육과학기술부, 2009) 총 30개교이지만 유사한 교과과정의 유사관련학과는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수

적으로 증가된 보건행정학과 및 유사학과는 조금씩 다른 교과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른 보건계열처럼 특정 직업군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달리 학교마다 조금씩 따른 교과과정으로 인해 직업과 진로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직업군의 선택으로 인하여 진출분야도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로 선택이 더욱더 중요하다.

진로태도성숙이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이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은 개인마다 자신이 살아 온 환경과 직업에 대한 지식 및 기대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숙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장석민 등, 1991). 따라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인 진로성숙(장석민 등, 1991)의 정도와 이에 미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진로진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다양한 진로태도성숙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진로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김명아 등, 2004).

지금까지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김재호, 2006) 및 중·고등학생(이기학, 1997; 손정순, 2008; Creed PA와 Patton W, 2003)과 대학생(이기학, 2003; 이상희, 2005)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Bandura(1977)의 자아 효능감 신념의 중요성을 진로발달과정에 설명한 Hackett과 Betz(1981) 이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Luzzo, 1993; Peterson, SL & DelMas, RC, 1998; 이상희, 2005)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진로와 관련되어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손정순, 2008; 정옥미, 2006)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보건행정학과를 포함한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이 오히려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진로태도성숙의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의 모집단은 의무기록을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건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교와 2년제 대학 2개교에 재학 중인 보건행정학과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95명이다. 395명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응답하여 비응답자는 없었으나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4부가 있어 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3. 연구도구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도구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평가 5문항, 직업정보 수집 5문항, 목표선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자신 없다' 0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 9점까지의 10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0점에서 2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계수 .83, .81, .85, .84, .74, 그리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계수 .73, .69, .74, .74, .73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92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명숙(1994)이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김연희(1998)가 일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친구지지 8문항, 부모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4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연희(199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계수 .87, .92, .77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89이었다.

3) 직업교육경험

직업교육경험은 김희성(2002)이 개발한 직업준비 교육이용 문항을 신혜영(2004)이 수정 보완한 직업교육경험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행정학 대학생에 맞게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 예비 직장(인턴쉽) 경험, 직업교육 학원, 자격증 취득, 진로검사, 적성검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직장(정규직) 경험에 대한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직업준비 유익성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많이 도움이 됨' 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8점에서 56점으로 직업준비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직업준비경험의 유익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를 기초로 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CAMI)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결정성 10문항, 목적성 8문항, 확신성 10문항, 준비성 10문항, 독립성 9문항으로 총 47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47점에서 2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의 성숙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계수 .88 .75 .75 .76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하위척도별 Cronbach's alpha계수 .86, .75, .77, .75, .72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계수 .86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교와 2년제 대학 2개교에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 진행절차 및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하고 언제든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 3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다.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최종 3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5.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

술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35세(±5.71)로 20-24세가 55.1%, 19세 이하가 3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19.2%, 여학생이 80.8%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30.3%, 불교 12.1% 순이었다. 학년은 대학교의 1, 2학년과 전문대학의 1학년인 비졸업반이 52.5%, 대학교의 3, 4학년과 전문대학의 2학년인 졸업반이 47.5%이었다. 출신고교는 인문계가 77.5%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는 20.5%이었다.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보통이다'가 77.5%로 가장 많았고, '못산다'가10.2%, '잘산다'가 9.7%순이었다. 주관적인 학교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7.2%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35.5%, '불만족한다'가 13.3%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는 <표 2>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연령(F=6.733, p=.001), 출신고교(t=2.655, p=.008),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F=49.395, p=.000), 주관적인 건강상태(F=9.281,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25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4), 하부영역에서는 목표선택(F=6.730, p=.001), 미래계획(F=7.295, p=.001), 문제해결(F=4.096, p=.01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신고교에서는 인문고교출신자가 실업계 및 기타 고교출신자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655, p=.008), 하부영역에서는 직업정보(t=2.659, p=.008), 목표선택(t=2.682, p=.0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에서는 만족하는 상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보통(p=.000)과 불만족(p=.000)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은 불만족보다(p=.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하부영역에서는 직업정보(F=8.559, p=.000), 목표선택(F=51.792, p=.000), 미래계획(F=26.578, p=.000), 문제해결(F=41.597, p=.000), 자기평가(F=42.531,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보통(p=.001)과 나쁜 편(p=.031)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하부영역에서는 직업정보(F=4.341, p=.014,), 목표선택((F=8.461., p=.000), 미래계획(F=4.933, p=.008), 문제해결(F=5.426, p=.005), 자기평가(F=6.375,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8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나이	19세 이하	150(39.4)
	20-24세	210(55.1)
	25-29세	20(5.2)
	30세 이상	1(0.3)
	평균(표준편차)	20.35(±1.99)
성별	남학생	73(19.2)
	여학생	308(80.8)
종교	기독교	115(30.3)
	천주교	44(11.6)
	불교	46(12.1)
	없음	173(45.5)
	기타	2(0.5)
학년	비졸업반(대학12, 전문1)	200(52.5)
	졸업반(대학34, 전문2)	181(47.5)
고교	인문계	295(77.6)
	실업계	78(20.5)
	예체능계	1(0.3)
	기타	6(1.6)
주관적인 경제상태	매우잘산다	8(2.1)
	잘산다	36(9.7)
	보통이다	289(77.5)
	못산다	38(10.2)
	매우 못산다	2(0.5)
주관적인 학교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1(2.9)
	만족한다	133(35.5)
	보통이다	177(47.2)
	불만족한다	50(13.3)
	매우 불만족한다	4(1.1)

사회적 지지는 경제상태(F=7.450, p=.001),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F=17.003, p=.000), 건강상태(F=13.567,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상태에서는 잘사는 경우가 못사는 경우보다(p=.042), 보통인 경우가 못사는 경우보다(p=.001) 사회적 지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부영역에서는 가족지지(F=4.308, p=.014), 교수지지(F=8.384,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p=.000)과 불만족하는 경우보다(p=.000), 보통인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p=.000) 사회적 지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부영역에서는 친구지지(F=11.062, p=.000)와 교수지지(F=25.246,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서는 좋은 경우가 보통보다(p=.000),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p=.005) 사회적 지지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부영역에서는 친구지지(F=9.435, p=.000), 가족지지(F=5.257, p=.006), 교수지지(F=9.493,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교육경험은 연령(F=6.974, p=.001), 고교(t=-1.979, p=.049),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F=7.58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20-24세가 19세 이하보다(p=.002), 고교는 인문계 이외의 실업계 및 기타 고교가 인문계 고교보다(t=-1.979, p=.049),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p=.001)과 보통(p=.024)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직업교육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태도성숙은 연령(F=3.415, p=.034), 고교(t=2.661, p=.008), 경제상태(F=3.627, p=.028),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F=7.964, p=.000), 건강상태(F=6.507,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는 25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46), 하부영역에서는 확신성(F=6.619, p=.001)과 준비성(F=유한 차3, p=.024)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교에서는 인문계 고교가 인문계 이외의 기타 고교보다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661, p=.008). 경제상태에서는 잘산다는 경우가 못산다는 경우보다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28), 하부영역에서는 확신성(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인 경우가 보통(p=.001)과 불만족(p=.016)인 경우보다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부영역에서는 높았성(F=5.685, p=.004)과 확신성(F=19.128,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서는 좋다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6), 하부영역에서는 확신성(F=11.538,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변이

N=381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M(SD)						사회적 지지 M(SD)				직업교육경험 M(SD)	진로태도성숙 M(SD)					
		합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	합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합	합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
연령	~19	89.05 (12.66)	25.55 (6.73)	16.00 (2.74)	13.64 (2.21)	17.06 (2.44)	16.81 (2.87)	89.20 (9.37)	32.29 (3.83)	32.52 (5.72)	24.38 (3.89)	16.57 (6.85)	154.92 (15.68)	30.89 (6.58)	22.87 (4.47)	31.10 (5.34)	38.01 (4.63)	31.87 (4.34)
	20~24	92.23 (12.69)	26.92 (6.69)	16.60 (2.82)	14.29 (2.32)	17.27 (2.85)	17.22 (2.94)	89.88 (10.53)	32.17 (3.82)	32.92 (5.37)	24.78 (4.41)	19.38 (7.59)	157.33 (15.68)	30.80 (6.60)	23.72 (4.27)	31.44 (5.04)	39.39 (4.96)	32.14 (4.24)
	25~	98.80 (9.83)	28.00 (5.51)	18.28 (2.95)	15.42 (2.20)	18.85 (2.45)	18.23 (2.77)	93.33 (9.29)	32.90 (3.43)	34.33 (4.54)	26.09 (4.08)	19.79 (7.37)	164.00 (15.23)	32.80 (5.50)	24.66 (5.39)	35.38 (2.33)	38.19 (3.88)	32.95 (4.58)
	F	** 6.733	2.447	** 6.730	** 7.295	* 4.096	2.479	1.580	.358	1.064	1.618	** 6.974	* 3.415	.903	2.437	** 6.619	* 3.793	.632
고교	인문	92.27 (12.55)	26.93 (6.54)	16.67 (2.84)	14.18 (2.33)	17.35 (2.73)	17.19 (3.00)	90.34 (9.53)	32.31 (3.58)	33.21 (5.29)	24.81 (4.19)	17.89 (7.21)	157.90 (15.56)	31.16 (6.31)	23.76 (4.42)	32.12 (5.00)	38.89 (4.81)	32.06 (4.31)
	실업계 및 기타	88.15 (12.92)	24.76 (6.87)	15.74 (2.74)	13.84 (2.22)	17.02 (2.60)	16.87 (2.61)	87.97 (11.50)	32.08 (4.47)	31.59 (5.93)	24.30 (4.25)	19.68 (7.94)	152.80 (15.87)	30.22 (7.25)	22.34 (4.32)	29.47 (5.06)	38.40 (4.84)	32.15 (4.24)
	t	* 2.655	* 2.659	* 2.682	1.178	1.002	.894	1.741	.445	* 2.425	.997	* -1.979	* 2.661	1.168	* 2.597	*** 4.298	.815	-.166
경제 상태	잘산다	92.71 (11.65)	26.65 (6.85)	16.93 (2.73)	14.54 (2.16)	17.54 (2.80)	17.09 (2.91)	89.62 (11.09)	32.43 (4.43)	32.06 (6.15)	25.12 (4.61)	17.59 (7.19)	162.15 (15.20)	32.68 (6.06)	24.27 (4.58)	33.65 (4.67)	38.59 (5.41)	32.95 (5.08)
	보통	91.66 (12.95	26.61 (6.63)	16.48 (2.85)	14.13 (2.32)	17.31 (2.70)	17.18 (2.95)	90.59 (9.57)	32.37 (3.60)	33.24 (5.20)	24.97 (3.99)	18.46 (7.52)	156.40 (15.71)	30.88 (6.64)	23.37 (4.46)	31.54 (5.01)	38.73 (4.64)	31.86 (4.20)
	못산다	87.48 (11.81)	24.97 (6.78)	15.76 (2.84	13.32 (2.26)	16.77 (2.58)	16.66 (2.69)	84.17 (10.69)	31.27 (4.39)	30.72 (6.20)	22.17 (4.54)	17.90 (6.87)	153.38 (15.62)	29.50 (5.95)	23.02 (4.05)	29.07 (5.61)	39.35 (5.47)	32.76 (3.95)
	F	2.198	1.087	1.765	2.963	.930	.541	** 7.450	1.517	* 4.308	*** 8.384	.329	* 3.627	2.512	.969	*** 8.552	.326	1.793
학교 생활	만족	96.96 (10.95)	27.66 (5.82)	17.67 (2.45)	14.95 (2.28)	18.43 (2.10)	18.34 (2.44)	92.89 (9.02)	33.30 (3.41)	33.37 (5.21)	26.21 (3.98)	19.59 (7.61)	160.74 (15.05)	32.38 (6.43)	23.60 (4.46)	33.37 (4.90)	39.44 (4.67)	32.19 (3.89)
	보통	90.18 (10.89)	26.35 (6.74)	16.24 (2.34)	13.89 (1.91)	17.01 (2.44)	16.86 (2.56)	88.44 (9.53)	31.74 (3.67)	32.62 (5.46)	24.07 (3.60)	18.19 (7.04)	154.39 (14.44)	30.08 (6.13)	23.26 (4.39)	30.74 (4.49)	38.45 (4.51)	31.68 (4.27)
	불만족	79.23 (13.59)	23.28 (7.83)	13.62 (3.03)	12.47 (2.62)	14.92 (3.23)	14.49 (3.27)	84.66 (11.02)	30.90 (4.45)	31.68 (6.12)	22.06 (4.61)	15.12 (6.70)	153.56 (19.59)	30.00 (7.43)	23.83 (4.66)	29.05 (6.16)	37.79 (6.02)	32.88 (5.27)
	F	*** 49.395	*** 8.559	*** 51.792	*** 26.578	*** 41.594	*** 42.531	*** 17.003	*** 11.062	2.004	*** 25.246	** 7.580	*** 7.964	* 5.685	.425	*** 19.128	2.867	1.742
건강 상태	좋다	93.50 (11.75)	27.26 (6.06)	16.88 (2.75)	14.34 (2.22)	17.61 (2.65)	17.53 (2.80)	91.75 (9.22)	32.91 (3.50)	33.49 (5.18)	25.34 (4.02)	18.76 (7.41)	159.05 (15.27)	31.33 (6.14)	23.71 (4.60)	32.53 (4.65)	39.07 (4.60)	32.38 (4.15)
	보통	88.24 (13.16)	25.16 (7.46)	15.87 (2.68)	13.89 (2.26)	16.87 (2.59)	16.52 (2.89)	86.87 (9.71)	31.17 (3.76)	31.97 (5.54)	23.72 (4.04)	17.53 (7.28)	153.53 (16.23)	30.55 (6.99)	23.23 (4.15)	29.88 (5.56)	38.31 (5.02)	31.45 (4.48)
	나쁘다	86.27 (14.54)	25.38 (7.19)	15.04 (3.25)	12.86 (3.04)	16.08 (3.31)	16.13 (3.37)	84.78 (12.97)	31.60 (5.17)	30.56 (6.82)	22.60 (4.56)	18.15 (6.93)	152.55 (14.62)	29.69 (7.44)	22.54 (4.62)	31.00 (5.09)	37.86 (5.86)	32.30 (4.56)
	F	*** 9.281	* 4.341	*** 8.461	* 4.933	* 5.426	** 6.375	*** 13.567	*** 9.435	** 5.257	*** 9.493	1.167	** 6.507	1.042	.986	*** 11.538	1.462	1.932

* 〈 0.05, ** 〈 0.01, ** 〈 0.001

3.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 진로태도성숙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은 진로효능감(r=.502, p=.000), 친구지지(r=.373, p=.000), 가족지지(r=.259, p=.000), 교수지지(r=.286, p=.000), 직업교육경험(r=171, p=.001)과 순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

〈표 3〉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N=381

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p)	친구지지 r(p)	가족지지 r(p)	교수지지 r(p)	직업교육경험 r(p)
친구지지	.338(.000)				
가족지지	.256(.000)	.460(.000)			
교수지지	.483(.000)	.245(.000)	.254(.000)		
직업교육경험	.262(.000)	.158(.002)	.091(.076)	.107(.037)	
진로태도성숙	.502(.000)	.373(.000)	.259(.000)	.286(.000)	.171(.001)

4.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변수와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요인

N=381

변 수	S.E	β	t	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66	.378	7.166	.000
친구 지지	.211	.198	3.928	.000
가족 지지	.143	.054	1090	.276
교수 지지	.189	.011	.217	.828
직업교육경험	.100	.053	1.140	.255
연령	.407	.124	2.411	.016
졸업학년	1.643	-.161	-3.097	.002
고교	1.779	-.068	-1.472	.142
주관적인 경제상태	1.268	-.062	-1.410	.160
주관적인 건강상태	.837	-.026	-.573	.567
F		18.651		
Adjusted R^2		.322		

다중공성선에 대한 검정결과에서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성선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변수와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주요변수와 일반적 특성의 독립변수들이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변동의 32%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378, p=.000),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β=.198, p=.000)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β=.124, p=.016), 졸업학년이 아닐수록(β=−.161, p=.002) 진로태도성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논　　의

본 연구는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교와 2년제 대학 2개교에 재학 중인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준비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 중 25세 이상인 경우와 인문고교를 졸업한 경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Creed PA와 Patton W(2003)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태도가 성숙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영태(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 1, 2학년보다 3, 4학년에서 진로태도성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연령 면에서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에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준비경험이 많아지고 또한 그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함께 높아졌다 볼 수 있으며 이는 연령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비 졸업학년일수록 진로태도성숙점수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행정학을 제외한 의학, 간호학, 치위생학과 같은 보건계열의 경우 특정 면허와 관련된 직종으로 대부분 진로가 결정되지만 보건행정은 보건계열이면서도 취업을 위해 다수의 면허취득 모색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은 신입생시기에 정립되지 못한 전공관련 직업관과 진로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진로의 특성으로 인하여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혜(2007)의 연구에서도 다른 학년보다 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가 좁혀진데 대한 안도감과 안정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조지혜, 200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서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진로태도성숙에서는 이외에 경제상태가 높은 경우까지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김명아 등(2004)은 전공에 대한 충실도와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지적하였는데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적응을 더 잘한 학생들이 만족도가 더 높았다 볼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의 수준은 단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기신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Bandura, 1997),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진단적 판단은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및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하였다고 사료된다. 김영태(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인 결정성에서 건강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 중 사회적 지지는 경제상태가 높고, 주관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현진, 2009)를 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부모지지, 친구지지가 높게 나왔고,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물적, 정서, 정보, 평가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쳐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했다(이현진, 2009)고 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지와 정보적 지원에서 기인된 결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변이 중 직업교육경험은 연령이 20-24세 사이, 고교는 실업계 및 기타 고교출신,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년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학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유미정, 2008)를 보면, 2학년이 1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준비행동도 활발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연령 그룹에서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실업계 및 기타 고교출신 학생들이 높은 것은 고교시절 전문적인 기술과 실무경험을 수업을 통해 학습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윤영란(2008)은 대학 내 진로교과목 수업이나 진로집단 상담으로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향상 되었고, 진로전반에 대한 자신감 향상 및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관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경험한 것이 유익하여 학습만족도에 반영되었으며 학생 스스로 흥미와 관심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직업교육경험의 관계는 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이기학, 이학주, 2000)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점수가 높다는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효능감 수준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이기학, 이학주, 2000). 또한 본 연구와 Lee(2003). Penick(1992), 박지영(1995) 등의 연구도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 효능감이 사회적 지지 및 가족응집력과 상관성이 있다고 기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홍미리(2005)의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주변인의 지지,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진은아(2007)도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지지를 높게 지각한 고등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이 높고, 진로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이며 사회적 지지 대상이 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의미 있는 타인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이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정보가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경험 역시 진로태도성숙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같이 신혜영(2003)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진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험은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과정으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이 진로선택과정에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학, 이학주(2000)는 진로태도성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변인의 격려 특히, 친구집단의 조언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향상되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현재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은 타 보건계열학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학과의 전문적인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진로결정에 있어 학생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면허와 관련된 진로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학습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실습기간의 연장과 학기 중 현장실습 및 졸업 후 인턴십 제도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직업교육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진로태도성숙을 함양시키기 위해 시도되었고,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천, 경기 및 충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개교와 2년제 대학 2개교의 의무기록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항목이 누락되어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충분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최종 38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태도성숙은 주관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직업교육경험은 실업계 및 기타 고교졸업생일수록, 주관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진로태도성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직업교육경험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 졸업학년일수록, 인문고교 졸업생일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효능감, 학생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직업교육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은 재학동안에 학습동아리 그룹을 형성하여 진로 및 학습에 관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학과 동료그룹을 형성하며, 교수는 체계적인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성을 정확히 알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지 그룹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산업체 특강, 산학협력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충분한 실무학습과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졸업 후 관련 직종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짧고 형식적인 현장실습의 틀을 깨고, 실질적인 업무를 접할 수 있는 실습과 졸업 후 인턴십 제도의 의무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보건행정학과와 관련된 면허로써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 채용에 있어 인원제시 및 확대가 법제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직업교육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표집하지 못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보건행정학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함양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기 위해선 보건행정학 대학생의 요구도 및 학제에 따른 차이점을 먼저 확인하고,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진로교육방법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효정 대학의 의무기록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석사학위논문], 부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1999.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및 전문대학 정보. http://www.mest.go.kr;2009.

김명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1994.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4;13(4):383-389.

김연희.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8.

김영태.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원광대 학술지 2005;34:81-104.

김재호.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2006.

김희성.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2.

남영희, 권현주, 천의영. 2년제 보건행정과와 의료정보과 대학생의 진로준비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수원여대 논문집 2008;115-134.

박지영. 인문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과 진로 의사 결정과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1995.

손정순.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사회적지지 및 자기 통제력의 차이[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신혜영.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4.

윤영란.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진로교과목 수업과 진로집단 상담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상명대학교 대학원;2008.

이기학.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1997.

이기학.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03;11(1):13-21.

이기학, 이학주.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0;12(1):127-136.

이상희.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2005.

이은진.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2001.

이현진.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9.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정옥미.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2006.

조지혜.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7.

최원호, 이태정. 전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체계 유형과 진로 태도 성숙 및 진로 결정 효능감의 관계,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2003;7:389-412.

홍미리. 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5.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1997.

Creed PA, Patton W. Differences in career attitude and career knowledge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and without paid work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003;3(1):21-33.

Creed PA, Patton W. Predicting two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in school based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003;29(4):277-290.

Crites JO.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lifornia: CTB/McGraw-Hill, 1978.

Hackett G, Betz NE.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1;18:326-339.

Lee S-K. The relationship of family interaction to Korean high school girls' career attitude mat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2003;4(2):1-14.

Luzzo DA.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3;26: 137-142.

Penick MF. Student characteristic as predicator of vocational attitude maturity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2.

Peterson SL, Delmas RC. The component structur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underprepar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998;24(3):209-226.

Taylor KM, Betz N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 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22:63-81.